

# ‘잔치로의 초대’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환자 소개

#### <개인정보>

- 성명: 김○○(M/28)
- 종교: 천주교 (미카엘)
- 진단명: 위암
- 과거력: 특이소견 없음
- 입원 경과: 2016년 12월 진행성 위암 진단받고 시험적 개복술 시행했으나 복막 전이로 폐복하고 고식적 항암 치료 시행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없이 암의 전이가 진행되었으며 복부와 허리 통증으로 좌식 생활만 가능하였고 물 정도만 마시는 상태로 본원 호스피스로 전원 의뢰되어 호스피스 치료에 관한 설명 후 가족 동의로 본원 호스피스로 입원함.

- 입원기간: 2017. 03. 31. ~ 04. 23.
- 입종알: 2017. 04. 23.

#### <입원 시 상태>

- 활동상태: ECOG 4
- 의식상태: 명료
- 식이: 물만 마시는 상태
- 활력징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은 정상 범위
- 신체검진: 복부 단단함, 가벼운 압통, 장음 감소
- 삽관: 비위관, 케모포트

### 진료 부분

#### <병력>

2016. 12    진행성 위암, 복막 전이 진단 (과거 특이 질환 없었음)
2017. 3. 31.    본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

- 돌발성 통증 조절 빈도 증가
- 장음 감소, 장폐색 증상
- (치료계획)
- 통증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교육함
- 평균 통증 점수 및 돌발 통증의 빈도, 강도를 고려하며 진통제 용량 조절
- 마약성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 진통제를 병행하여 사용
- 통증 및 불안이 높아져 완화적 진정에 대한 동의 후 완화적 진정 시행
- (반응)
- 통증 호소에 따라 약물을 증량하였으며, 초

####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 # 1. 통증 (사정)

- 지속적 통증 호소.
- 통증으로 눕지 못하고 좌식 생활

기에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정도로 조절되기도 했으나, 입원 기간 계속되면서 통증 호소가 지속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돌발성 통증에 대처하여 진통제 용량을 지속해서 늘여서 조절함.

## # 2. 악성 장폐색

(사정)

- 입 마름, 갈증 호소로 경구 섭취의 의지가 강하였음

- 경구 섭취와 비위관 배액을 반복함

(치료계획)

- 간헐적 구도 증상에 대해 금식 교육

- 장액 분비물 감소를 위한 항콜린제와 산도스타틴 유사제 약물치료

- 경정맥 영양 유지

(반응)

- 환자가 갈증으로 인해 금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물을 복용하는 모습이 보였고,

장폐색 및 환자 불편감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 3. 불안, 수면장애

(사정)

- 통증, 구도 등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함.

-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함.

- 가족과의 갈등으로 심리적 불안이 있었음.

(치료계획)

- 심리 상담 연계

- 수녀님을 통한 적극적 영적 돌봄

- 증상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 교육

- 저용량으로 항불안제 간헐적으로 사용

- 가족의 불안도가 높아 가족 지지

(반응)

- 신체적 힘들어 지속되었지만 정서적 지지로 환자, 가족의 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함.

## 간호 부분

### <간호학적 진단>

#### # 1. 악성 종양과 관련된 통증

(사정)

- 주로 간헐적인 복부 통증 호소함

- PRN 진통제 평균 7회 /일 투여됨

- 돌발성 통증 시 통증 점수 : 평균 4-5점

- 진통제 증량 후 근거리에서 투약하면 어지러움을 호소함

(계획 및 중재)

- 개인적이며 비언어적인 통증 표현 방식을 수용한다.

- 통증의 심리적 악화요인과 완화요인을 사정한다.

- 통증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교육한다.

-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을 인정해 준다.

(평가)

- 통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

- 진통제 투여 후에도 잦은 복부 통증 지속되어 진통제 용량 증량함.

- NRS 0~1점 측정됨 → 통증과 섬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완화 진정을 시작함.

#### # 2. 상황적 위기와 관련된 불안

(사정)

- 완화 진정으로 깊은 수면을 하자 깨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모습 관찰됨.

-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불안감, 무력감 있으며 긴장된 모습임.
- 환자, 보호자 병식 있으나 현 상태에 대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함.
- 종교적으로 의지하려고 함.  
(계획 및 중재)
- 종교적 돌봄으로 불안감 표현하도록 하며 영적 지지 제공한다.
- 다학제 간 지속적 방문과 면담으로 정서적 지지 제공한다.
- 공예요법, 마사지, 미술 상담치료 등 참여토록 하여 불안감 완화를 돕는다.
- 호소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감정표현에 공감해준다.
- 문제 제기 시에는 즉각적으로 해결 해주려는 모습을 보인다.  
(평가)
- 대세, 기도 등으로 “미카엘이 편안할 것 같다.”라고 표현함.
- 미술 상담치료 요법을 통해 심리적 아픔을 말로 표현 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함.
- 환자, 보호자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인 지지 필요.

## 사회복지 부분

### <개인력>

- M/28, 고졸, 무교→천주교
- 충남 논산 출생 충북 충주 거주
- 건강보험, 입원 당시 소득, 부채, 개인보험, 재산 없음
- 1남 2녀 중 막내로 출생
- 착하고 순한 성격
- 5세, 어머니 뇌종양으로 사망함, 아버지 재혼하고 부모의 보살핌 받지 못하며 할머니 손에서 길러짐
- 16세, 할머니 사망함
- 성인이 되어 군 제대 후 혼자 거주하며 택배 물류센터에서 약 3년간 야간 근무함. 이 당시 가족들과 연락 소원함
- 무교이나 팔에 성모마리아 문신이 있었으며 천주교 세례에 대한 의사 밝힘

### <가족력>

#### (첫째 누나)

- 무교, 충남 금산 거주, 공무원이며 현재 휴직

중. 기혼, 슬하 자녀 없음

#### - '무섭고 엄한 누나' by환자

- 환자를 잘 돌보지 못해 발병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 표현함
- 환자의 간병을 전적으로 도움
- 입원 초기 모든 사람의 방문을 거부하며 방어적 태도

#### (둘째 누나)

- 무교, 미혼, 서울 거주
- 입원 중반부터 일을 그만두고 환자의 간병을 도움.

#### (이종사촌 누나)

- 천주교, 환자의 간병 도움, 환자의 세례에 도움

#### (아버지)

- 무교, 충남 논산 거주
- 식당 운영
- 심리적 어려움 호소
- 경제적 어려움 호소

#### (새어머니)

- 입원 기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 환자와 환자의 누나들과 사이좋지 않음

<사정>

(문제 사정)

- 환자의 병식 부재 : 수술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함
- 디스트레스 높음
- 가족응집력 낮음
- 임종 및 장례준비 미흡함

(강점 사정)

- 가족 : 누나들 환자에 책임감 있고 지지적임
- 환경 : 호스피스팀원이 환자의 다면적 문제에 관심이 많음. 수녀님이 환자의 영적 요구 충족 가능
- 상황 : 환자와 가족이 환자의 천주교 세례를 원하였고 원내에서 대세 가능함

<개입>

(환자 병식 확인 및 심리적, 영적 지지 연계)

- 환자 상담 요법 등 프로그램 참여 연계
- 가족 상담을 통한 정확한 상태 고지 및 가족 지지체계 재보증
- 대세 진행
-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의 방문 연계
-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
- 팀 접근과 요법 연계를 통한 첫째 누나의 정

서적 지지  
(장례준비 도움)

- 장례 및 임종 준비 사항 안내

<결과>

- 환자는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 현재 상태에 대한 차이를 표현하였으나 상담 요법을 통해 병식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준비를 진행함.
-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가족이 환자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가족 상담을 통해 전달해주기를 원하였으나, 실제 시행에는 주저하는 모습 보여 가족 상담을 하지는 못 하였음.
- 호스피스팀과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병실 방문을 통한 영적, 정신, 심리적인 지지가 잘 이루어져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죽음을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가는 태도로 변화됨.
- 지속적인 요법 연계와 지지를 통한 가족들의 안정 도모.
- 장례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로 분주함 없이 장례를 준비하여 무사히 장례를 치름.
- 사별가족 모임 방문하여 팀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하고 소정의 후원금 기부함.

원목 부분

<환자 사정>

당시 환우는 특정 종교가 없었는데 만남을 거듭하면서 가톨릭에 관심을 보였고 대세를 받게 되고 본당 신부님의 배려로 보레(보충세례)와 병자성사를 받았다.

특이할 가족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외도와 재혼, 어머니와의 사별로 가족 간에 결속이 약하게 살아왔다.

미카엘의 발병을 계기로 함께하면서 아버지와 자매들, 큰누나 부부간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그런 가운데 이종사촌 누나와 여자 친

구가 정성어린 돌봄을 했고 친가 쪽에서는 유일하게 작은 엄마가, 외가 쪽에서는 이모들이 때때로 방문하였다.

### # 1. 환자의 정신 심리적 상태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손길과 접촉을 좋아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였고 농담과 유머를 좋아하고 예의 바르며 방문을 환영하였다.

### # 2. 환우의 영적인 상태

군 생활 중 교회나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에 관심을 가졌다. 누나는 신앙이 현실적 고통에 대한 은신처, 또는 도피처라고 생각했기에 죽음을 앞둔 미카엘의 세례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였으나 미카엘 본인의 원 의가 강해서 동의했다.

## <영적 진단 >

### # 1. 죽음 수용과 희망

### # 2. 용서와 화해

### # 3. 신체기능 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무력감

죽음 수용과 희망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영적 돌봄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 < 영적 돌봄 계획 >

영적 진단에 따른 환자 돌봄과 더불어 극도의 불안으로 예민한 가족의 심리적 영적

돌봄을 계획.

### # 1. 죽음 수용과 희망

### # 2. 용서와 화해를 위한 영적 돌봄

#### 1) <기도>를 통한 돌봄

기도를 좋아하는 미카엘과 <함께> 기도하였고, 수도자들이 바치는 공동기도에서도 공동체 수녀님들이 미카엘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셨다. 감사와 용서, 고통에 대해서 그림과 짧은 기도로 표현해 놓은 소책자를 이용했고 성화와 음악을 이용해서 돌보았다.

#### 2) 공감적 경청과 지속적 만남을 통한 돌봄

가족들과 떨어져 줄곧 혼자 살아온 미카엘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과 위로를 줌으로써 미카엘은 호스피스 돌봄의 과정 안에서 가족의 지지와 사랑, 용서와 화해를 알아갔다.

#### 3) 다음은 <다리가 되어 주는> 돌봄

환우와 보호자가 서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여정이었다. 미카엘의 소망을 보호자들이 유언으로 간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 # 3. 우울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한 영적 돌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정으로써 가족 돌봄의 일부였다. 가족이 기도 책을 읽어주고, 앨범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고, 특히 여자 친구와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둘이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며칠 고민한 끝에 커플링을 맞추어 나누는 의식을 가졌다. 또한, 자신을 잘 노출하지 않던 미카엘이 가족들과 여자 친구에게 아픈 가족 배경과 유년 시절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마무리

환우 돌봄뿐 아니라 가족 돌봄에 특별히 집중해야 했고 지금도 보호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를 동반하면서 모든 갈등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풀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보호자들이 사랑하는 미카엘의 죽음을 수용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옮겨감>이라는 신학적 이해와 신앙을 떠나서, 보호자들이 스스로 찾은 죽음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놀러 오세요! 잔칫상에 오세요!> 미카엘의 떠남은 화해와 용서로의 초대, 남은 이들의 사랑의 기억, 떠나는 이가 베푸는 잔치로의 초대였습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옮겨감’의 여정을 함께 했던 우리 모두에게 미카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장례일정을 마치면서 큰누나가 “미카엘이 한턱 내는 잔치에 꼭 오세요.”라고 해서 빈소에서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미카엘의 선하고 고운 마음씨와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카엘의 형제들은 나름대로 사별의 아픔을 승화시키면서 미카엘과 함께했던 장소를 찾곤 한다고 때때로 소식을 전합니다. 미카엘의 소망대로 큰누나는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힘든 시기에 온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남편과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아

버지를 너무나도 빼닮아 미워했던 여동생과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영적 돌봄을 함께 하는 수녀님이 우리의 돌봄을 <산파>로서의 체험이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마지막 순간 앞에서 새로운 탄생을 체험합니다.

28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다간 미카엘이지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그를 보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 낸 미카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미카엘의 소명, 존재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미카엘은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한 저희 호스피스팀원 모두가 함께하는 <전인적 돌봄>은 “유한한 시간 안에서 무한을 경험”토록 도움으로써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거룩한 소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